

“류현진, 내년 2,3선발...김광현, STL과 끝나” MLB닷컴

“연간 2000만 달러 2년 계약 남아 반등한 류현진 필요해”
 “최지만 탬파베이 떠날 수도...김하성은 더 많은 출전 예상”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가 류현진(34)을 2022년 토론토 블루제이스 2, 3선발로 점쳤다. MLB닷컴은 26일(현지시간) 일찌감치 시즌을 마친 토론토의 내년 로스터를 전망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로 이적, 2023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류현진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매체는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것 중 가장 높은 4.3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연간 2000만 달러의 2년 계약이 남아있어 토론토로서는 반등한 류현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류현진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내줬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류현진은 여전히 2선발 혹은 매우 좋은 3선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류현진은 올해 31경기에 등판해 14승10패 평균자책점 4.37의 성적을 냈다. 승수는 개인 한 시즌 최대 타이(2013·2014·2019년)를 이뤘지만 퀄리티 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는 13번에 그쳤다. 토론토의 에이스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로비 레이가 될 것으로 봤다. MLB닷컴은 “레이는 토론토의 에이스가 됐고, 구단 역사에 남을 최고의 시즌 중 하나를 보냈다”고 호평했다.

다. 레이 이번 시즌 32경기에 등판, 13승7패 평균자책점 2.84의 성적을 남겼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내년 전망에서는 김광현(33)과의 이별을 예상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와 2년 계약한 김광현은 2021 시즌 후 FA 자격을 얻었다. MLB닷컴은 “팔꿈치와 허리 등 부상을 겪었던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에서의)길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왼손 투수를 찾는 팀과 계약할 수도 있다”고 썼다. 메이저리그 2년 차의 김광현은 올 시즌 초반부터 허리 통증 등으로 어

려움을 겪었다. 시즌 막바지에는 볼펜으로 보직 이동을 하는 등 여러 번 수 속에서 시즌 27경기에서 7승7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올해 83경기에서 타율 0.229, 11홈런 45타점을 기록한 최지민(30·탬파베이 레이스)을 두고는 “시즌 중 몇 차례 부상을 당했지만, 수준 높은 수비를 보여줬고 타석에서는 11홈런을 기록했다. 여전히 1루수 플래툰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봉 상승과 팀 내야수 포화로 곧 이적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빅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낸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내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오프시즌 샌디에이고와 맺은 4년 2800만 달러의 계약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팬들은 백업 내야수라는 점을 증명했다. 엘리트 수비



수인 김하성은 지명타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뛰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117경기 타율 0.202, 8홈

런 34타점으로 마무리했다. 들쭉날쭉한 출전 기회 속에 타격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비에서는 2루와 3루, 유격수를 두루 소화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뉴스

‘원점부터 다시’ 양궁 국대 선발전 돌입...올림픽 금들의 대결

내일까지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2012 런던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무한 경쟁이다.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26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시작했다. 첫날 기록경기 결과에 따라 남녀 각 64명이 29일까지 토너먼트-리그전을 치러 32명씩을 가릴 예정이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여자부의 안산(광주여대)은 15위로 통과했다. 기록경기가 국가대표 선발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만 올림픽 3관왕 주인공 위에 14명이나 있다는 점이 한국 양궁의 세계적인 수준을 설명한다. 안산은 총점 1351점을 썼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장민희(인천대)가 4위, 강채영(현대모비스)이 5위에 올랐다.

안산은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앞으로 사활을 더 썩여 한다. 한 발, 한 발에 목숨 걸지 않고, 늘 그래온 것처럼 대충 쏠겠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태극마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없다. 모두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경쟁하는 만큼 나도 다시 도전자”라고 보았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의 대원칙은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과거 경력이나 성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은경(순천시청)이 총점 1378점으로 1위, 유수정(현대백화점)이 1371점으로 2위, 위나연(LH)이 1367점을 쏘 3위로 통과했다. 2016 리우올림픽 2관왕 장혜진(LH)은 10위, 런던올림픽과 리우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광주시청)는 17위로 통과했다. 남자부에선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청주시청)이 13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고교생 공사 김재택(경북일고)은 6위, 오진혁(현대제철)은 9위로 기록경

기를 마쳤다. 올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은퇴를 고민했던 오진혁은 다시 한 번 국가대표에 도전한다. 국제대회만큼 국가대표 선발전 경험도 많은 오진혁은 “다 잘 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발을 실수하면 순위가 10계단도 내려갈 수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모든 대회보다 월등히 힘들다”며 혀를 내둘렀다. 리우올림픽 전 관왕의 주역 이승윤(광주남구청), 구본찬(현대제철)은 각각 4위, 54위에 올랐다. 1차 선발전을 통해 가려진 남녀 각 32명은 내년 3월 2~3차 선발전을 통해 각 8명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다시 두 차례 최종 평가전을 통해 최종 엔트리 남녀 각 3명을 확정한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다는 양궁대표팀은 내년 9월에 개최되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등에 출전한다. 뉴스



여수시청 요트팀이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여수시청 요트팀,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종합 2위’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 11개국 300여 명의 선수단과 34척의 크루저 요트가 참가해 ‘여수 가막만’을 시작으로 ‘경남 통영 도남항’을 거

전남, 경남, 부산 3개 시도가 주최하고 남해안컵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남해안권 상생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신성장 해양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

여수 가막만~경남 통영 도남항~부산 수영만 잇는 극한 레이스 11개국 300여 선수단과 34척의 크루저요트, ‘흰파도 가른 질주’

쳐 ‘부산 수영만’까지 험난한 파도를 극복하는 극한의 크루저 레이스를 펼쳤다. 여수시청 요트팀은 가막만에서 펼쳐진 인쇼어 레이스에서 2위, 제1구간(여수 소호항 ~ 통영 도남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제2구간(통영 도남항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2위를 기록해 종합 2위에 올랐다. 뉴스=오상호기자

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회 참여 기회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면서 “여수시 소속의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9월 ‘평균자책점 0’ 최준용, 롯데 9월 MVP

롯데 자이언츠 9월 최고의 선수로 최준용이 뽑혔다고 27일 구단이 밝혔다. 롯데캐피탈 월간 MVP에 오른 투수 최준용은 9월에만 11경기(11⅓이닝)에 출전해 무실점(WHIP 1.06) 8홀드 11탈삼진을 기록하며 불펜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최준용은 “데뷔 첫 구단 월간 MVP를 받아 정말 뿌듯하다. 앞으로 더 자주 수상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캐피탈 월간 수훈 투수로는 구승민과 이인복이 선정됐다. 구승민은 한 달간 12경기(12이닝)에 구원 등판해 평균자책점 0.75(WHIP

0.92)로 3승4홀드11탈삼진을 올려 불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인복은 같은 기간 5경기(선발 등판 3회)에서 22⅓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84(WHIP 1.21), 16탈삼진을 기록했다. 야수 수훈을 선정하는 다습홈서비스 수훈 선수에는 전준우, 한동희가 뽑혔다. 전준우는 9월에만 27경기에서 43안타(3홈런) 26타점 타율 0.417(OPS *출루율+장타율 1.027)를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한동희는 같은 기간 26경기에 출전해 29안타(3홈런) 13타점 타율 0.349(OPS 0.975)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하나·박민지·임희정 등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서 격돌

디펜딩챔피언 장하나, 방어 박민지, 시즌 7승 정조준 임희정, 지난주 준우승 설옥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 4400만원)이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2)에서 막을 올린다. 에너지 유통, 정보통신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글로벌 컴퍼니 SK네트웍스와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손을 맞잡고 여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역대 챔피언으로 신지애(33)를 필두로 본 대회의 유일한 다승자인 김하늘(33), 이정은(5(33), 허윤경(31), 이정민(29), 이승현(30), 최혜진(22), 장하나(29) 등이 있다. 장하나는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 참가한다. KLPGA 통산 15승의 장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부담을 갖고 참가하지만, 그 압박을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 이번주 날씨가 좋으면 10번홀에서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멋진 샷을 날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하나는 “이번 시즌 남은 3개 대회에서 우승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욕심 부리기 보다는 열심히 치면 우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최근 망가졌던 스윙이 지난주 대회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주에 그 감을 최대한 이어서 멋진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올 시즌 6승을 올려 대상포인트, 상금순위 1위에 있는 박민지(23)는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설욕한다. 2021시즌 상금왕과 다승왕 타이틀이 확정된 박민지는 “이전에 훌륭한 성적을 내어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다. 늘 올 때마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참가해서 좋다”며 “대회 목표는 언제나 우승이다.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솔직한 목표를 말했다. 지난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그친 임희정(21)이 시즌 2승을 노리기 위해 출전한다. 임희정은 “재작년에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다.



요즘 감이 좋아서 이번에도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상포인트와 상금순위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박민지(21)도 하반기 1승을 추가하기 위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민지는 “그동안 이 코스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런 이 어려운 편인데, 세 번째 출전하는 만큼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다시 한 번 상금세를 타게 되면 우승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KLPGA투어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을 석권한 김효주 역

시 “우승이 목표다. 즐거운 골프를 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시즌 2승을 기록한 이소미(22)와 김수지(25)도 참가를 알렸으며, 최근 4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들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나린(25)이 시즌 첫 승을 위해 출격한다. 신인상을 노리는 송가은(21)을 비롯해 홍정민(19), 김희지(20)도 출전해 포인트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한편,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선수와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관중 대회로 진행된다.